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5-8]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머니의 날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들을 키우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으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5)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15-17)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무엇이 부족한 분도 아니시며 완전함 속에 즐거워 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시지 않고 그 분의 권리를 붙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권한을 움켜쥐지 않으셨으며 자신보다 남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비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정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구원은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기심, 교만함 그리고 자만심이 자리 잡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섬김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그 분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그 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여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죄인들 가운데 사셨으며 자신을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도록 스스로 허락하셨으며 율법을 만드시고 그 주체가 되신 분께서 그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21)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누가복음 2:6) 들판에서 주무시거나 남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20) 남의 소유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마태복음 13:2) 말이 아닌 나귀를 택해서 오르셨습니다. 2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2-3) 돌아가신 뒤에 조차도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59-60) 이것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기꺼이 사시겠습니까? **그의 삶과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 분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하셨으며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 "그 본성 자체가"라는 단어가 이

곳, 예수님께서 "종의 형제를 취하셨다"라는 설명을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이 종의 본질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본문구절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연약한 사람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와 같으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15).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그분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닌가?, 그 분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자라나지 않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1) 누가 이런 것을 믿겠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8)

그 분의 마지막은 범죄자와 같이 박해받고, 비난받고, 정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신 그 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모든 시간들은 겸손이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2b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사야 53:12b) 예수님이 택하신 죽음은 범죄자로 정죄 받아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그 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희생적 순종으로 그 분께서는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떠안고 가길 선택하셨습니다. *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3) 그 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섬김의 자리로 가길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약성경에서는 20번이나 넘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동안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베풀수록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섬길수록 더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